

허정무 “깜짝 발탁은 없다”

30일 예비명단 30명 발표 “그동안 못 보던 얼굴 없을 것”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예비명단(30명) 발표를 앞둔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깜짝 발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허 감독은 27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승리 기원 응원 현수막 제작식에 코치진과 함께 참석한 뒤 인터뷰에서 "계속 선수들을 점검하면서 걸러왔다. 대표팀 명단에서 그동안 못 보던 얼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감독은 오는 30일 남아공월드컵 대표팀 예비 명단을 발표한다.

이날 축구협회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허정무 감독을 중심으로 수비수 이영표(알힐랄)·오범석(울산)·조용현(제주)과 미드필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청용(볼턴)·기성용(셀틱), 공격

수 박주영(AS모나코)·이동국(전북)·이근호(이와타), 골키퍼 이운재(수원) 등 10명의 선수가 등장했다.

또 발등뼈를 다쳐 재활해온 공격수 염기훈(수원)이 이날 오후 싱가포르 압도포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30~40분 정도 뛸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말을 취재진으로부터 전해 들은 허 감독은 "우리는 5월 1일 리그 경기부터 출전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좋은 소식이다. 염기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라며 반겼다.

지난 25일 창사 전과 중구 프로축구 슈퍼리그 원정경기에서 1골2도움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이끈 안정환(다렌)의 상태를 정해성 수석코치를 통해 직접 확인한 허 감독은 "몸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훈련도 잘하고 있다더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 안정환의 대표팀 발탁에 무게를 둔 모습이 엿보였다. /연합뉴스



마의 산악구간을 넘어라!

27일 경북 상주에서 구미로 이어진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0' 대회 6구간 경기에서 선수들이 산악구간(K.O.M)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16구단 '광주 FC' 창단 가속도

내달 4일 지역 국회의원·대학총장 등 600명 규모 준비위 발족

프로축구 제16구단으로 참가하는 광주시 민프로축구단(가칭 광주FC)이 다음달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 창단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FC는 창단준비위원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대학총장, 변호사협회·의사협회 등 직능단체 대표 등 6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산하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4일 첫 회의를 열고 발기인 구성과 이사회를 거쳐 구단의 법인 설립 절차를 밟게 된다. 선수단 및 사무국 구성, 시민주 공모, 기업 스폰서 영입도 집행위원회가 총괄한다.

광주FC는 출범 첫해인 올해 창단 비용으로 50억원, 내년부터 연간 운영비로 7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광주시의회의 결정을 거쳐 시민주와 지역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창단 자금을 총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비 10억원과 발전기금 30억원 등 총 40억원을 내고 K-리그에 가입해 별도의 절차 없이 올해 말 프로연맹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를 연고로 했던 상무는 다른 도시로 이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창단준비위원들로부터 이미 승낙서를 받아온 상태"라며 "앞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선수단과 사무국 구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40대 88% “월드컵 16강 진출할 것”

젊은 층 대부분이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 이상의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등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20~4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3%가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7.6%는 우리나라가 4강 진출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기대감은 더 높았다.

또 지난 독일 월드컵보다 이번 대회에 더 관심이 간다는 응답이 51%였고, 64%가 단체응원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한편, 최고의 월드컵 마케팅 모델은 박지성(58.3%)과 김연아(51%)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라는 브라질이 37%로 1위, 스페인(17.3%)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강진서 대학 태권도 최강 가린다

30일부터 8일간 선수권대회 개막

'제37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겸 제2회 전국대학 품새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8일간 강진군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국 70개 대학선수 2300여 명과 임원, 학부모 등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남태권도협회가 주관하며 강진군과 강진군태권도협회가 후원한다.

개인선수권대회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6일간 남자 4개조와 여자 3개조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리고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열리는 품새대회는 개인전과 복식·단체전·태권체조로 우승을 다툰다.

이번 대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로 그동안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 발굴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 오고 있고 개인 기량은 물론 그동안 갈고 닦은 각 대학의 태권도 기량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국 대학의 태권도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객들의 재미를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이청용, 최고의 이적 16위”

꽃길만 더 타임스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데뷔 첫 시즌부터 맹활약한 이청용(22·볼턴)이 영국 언론이 자체 선정한 올 시즌 성공적인 영입 사례에서 16위에 올랐다.

영국 일간신문 더타임스는 27일(한국시각) 인터넷판 게임블로그란에 올 시즌 새로 입단 계약한 선수 중 최고의 활약을 펼친 20명을 간추려 소개하면서 16번째로 이청용의 이름을 올렸다.

이 신문은 이청용에 대해 "FC서울에서 220만 파운드에 볼턴으로 이적했다"면서 "오언 코일 볼턴 감독은 날선 한국인 미드필더가 아주 빅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입 사례로는 선덜랜드가 토트넘에 이적료 1천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온 공격수 대런 벤틀가 뽑혔다. /연합뉴스

이세돌 복귀 4개월만에 우승

비씨카드배 中 장하오 3-0 완파 이창호와 꺾기 게임 국가대표 선발

이세돌이 복귀 4개월 만에 세계대회 우승컵을 안았다. 이세돌 9단은 28일 서울 성동구 흥의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결승5번기 제3국에서 중국의 장하오 9단을 맞아 흑으로 171수만에 불계승했다.

24일~25일에 열렸던 1·2국에서 패승을 거뒀던 이세돌은 이로써 3-0 완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세돌의 기량을 확실하게 보여준 한 판이었다. 1·2국에서 난전으로 이끌어 완승을 이끌어냈던 이세돌은 오늘 대국에서 첫수를 5분 만에 착점하는 등 신중 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초반부터 신수를 구사하며 바둑을 어지럽게 만든 이세돌은 우상귀를 패로 백에게 넘겨 주고 대신 우변에 거대한 세력을 쌓았고 이후

자신의 세력에 침투해 온 백들을 공격하면서 하변에 큰 집을 지었다.

장하오는 좌변 흑돌 공격에 희망을 걸었다. 이세돌의 날카로운 반격으로 상변 백대마마저 무너지며 돌을 던졌다.

한편 한국기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선수강화위원회(위원장 최규병) 제2차 회의를 열고 올 11월에 열리는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창호 9단과 이세돌 9단의 출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남자 농구대표 감독 유재학씨

유재학(47) 울산 모비스 감독이 남자농구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됐다.

대한농구협회와 KBL은 27일 서울 송파구 오륜동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남녀 대표팀 사령탑에 국가대표팀 협의회에서 추천된 유재학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표팀을 처음 이끌게 된 유재학 감독은 "2009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성적이 안 좋아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많이 된다"며 "메달권 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대표팀 사령탑에는 임달식(46) 안산 신한은행 감독이 선임됐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이끌었던 임달식 감독은 9월 체코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11월 아시안게임에 대표팀을 이끌고 나가게 됐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가족모집

아이엘리시아는 가족모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내용	문의처
가족모집	전국	가족모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671-1199
가족모집	전국	가족모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671-1199

아이엘리시아 가족모집은 가족모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02-671-1199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량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기 관리하십니까?

1. 묘지 관리: 묘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묘지 조성: 묘지 조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묘지 정비: 묘지 정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묘지 설계: 묘지 설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